

나주시 7억 들인 배즙가공시설 7년째 표류

수익성 문제 등 운영자 못찾아 방치...사실상 가동중단 예산만 낭비한 채 애물단지 전략...무상임대 위협 논란도

나주시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수익원을 들여 준공한 배즙가공시설이 7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수익성 문제로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고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나주시 동수동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 내에 '나주배 청정음료 가공·포장 라인'을 완공했다.

소요 예산만 사업비 7억원(국비 3억 5000만원, 전남도비 7000만원, 나주시비 2억8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설면적 259㎡ 규모로 하루 5톤(2만7000파우치)의 청정 음료를 가공·포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막대한 현세를 투입해 놓고 7년째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시설 완공 후 운영주체 공모를 했지만 1년 기준 35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사용료와 까다로운 실적 조건 등으로 공모에 실패했다.

특히 공모실패의 한 원인으로 나주시가 전남도 소유인 전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건물 내에 7억원에 이르는 가공시설을 설

치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운영 희망업체들이 건물 및 부대시설 임대료는 전남도에, 가공시설 임대료는 나주시에 각각 부담해야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운영주체 찾기를 중단하고, 시의회와 무상사용 동의안에 따라 전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에 3년간 무상사용 위탁운영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가동실적은 3년간 특정업체 두 곳에서 위탁한 40톤(21만3000파우치)에 불과하다. 하루 생산량이 5톤이라는 점에서 3년동안 겨우 8월치 물량을 소화한 것이다.

나주시는 현재는 배즙생활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 주었지만, 이마저도 수익성 문제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후 나주시조공법인(APC)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APC도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배즙시설을 나주천연색소자원화센터로 옮겨 색소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략할 처지에 놓였다.

나주지역 배농가들 사이에서는 나주배



국비 등 7억원이 투입된 나주시 배즙가공·포장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원농협이 조성한 배즙공장에 이어 나주시의 배즙공장마저 방치되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배 농가들은 "나주배의 명성과 상징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안정화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즙공장이 상시 가동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주지역에서 해마다 출하되는 3만톤의 배 가운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품만 1만톤(30%)에 이르는데, 비품배가 배즙 등 가공식품으로 유통되지 않고 시중에 나주배로 판매되면서 나주배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배즙가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위험성 논란도 일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국비가 지원된 시설은 양도, 교환,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즙가공시설을 설치할 당시보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배즙가공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공시설을 나주천연색소자원화센터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방법이 없고 이제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해도 운영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지역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 행사 참석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 카펫' 3곳 설치

市·한전KPS·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지원

나주시 중앙·영산포·산포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옐로 카펫'이 설치됐다.

나주시와 한전KPS, 국제아동인권센터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7일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에 대기하는 공간인 인도와 벽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와 동작잡지 태양광 램프를 설치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고안한 시설로, 나주시는 행정적인 지원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한전KPS는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업을 주관하고 주민참여

유도와 설치도 진행했다.

옐로카펫은 전남도내에서는 나주에 처음으로 설치됐으며, 강인구 나주시장과 최요근 한전KPS 사장을 비롯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무장갑을 두드려가며 설치를 완료했다. 최요근 한전KPS 사장은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아동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구 나주시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을 위해 여러기관, 단체들이 합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주시에서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설치와 옐로카펫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삼진지예프, 캔김치 7만2000개 중국 수출

나주 소재 (주)삼진지예프(대표 허귀호)가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중국 소매시장에 캔김치를 수출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삼진지예프는 지난 3일 중국 산둥성의 구일무역과 수출협약에 따라 캔김치 7만2000개를 선적했다.

이날 수출 캔김치 선적 현장에 참석한 채진광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중국 소매시장 판매를 위한 캔김치 수출로는 국내 업체 중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캔김치 수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중국 김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진지예프는 지난 1974년 설립돼 복숭아 캔 등을 생산 수출하던 업체로 현재는 김치(캔, 절임), 소스류, 조미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삼진지예프는 일본의 세븐일레븐 그룹, 미국의 비비큐 소스, 대만 등에 김치와 소스류 등 매출의 90%를 수출하는 전문 식품기업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인구 시장 추곡수매 현장 방문 격려

강인구 나주시장이 지난 8일 왕곡면 덕산농협창고에서 진행된 추곡 수매장을 방문해 최근 수확이 피해와 쌀값 동향에 대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강 시장은 수매 현장에서 "올해 봄 가뭄과 수확기 잦은 비로 영농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풍년농사를 이룬 것은 농민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쌀값 하락과 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합심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격

려했다. 강 시장은 또 농협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전량 수매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매입 후 우선지급금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산물벼 추곡수매를 시작해 연말까지 정부 수매량 및 농협 자체수매량 8만6545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현재 34%를 매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 직업훈련 교육장 기능 대폭 보강

교부세 7억 확보 환경 개선

나주시가 직업훈련 교육장 기능보강에 나선다.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장 기능보강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강인구 나주시장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에너지 연관기업들의 본격적인 이전에 대비,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장 건물의 기능 강화와 규모 확충 등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를 방문해 국비확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달 2년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해 미취업 및 실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에너지 연관기업 500개 유치를 대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액 시비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청년 5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일자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직업훈련장 운영 및 관리를 일자리지원센터로 이관한 뒤 그 기능을 확대·강화해 지난 5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역고용환경에 적합한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수요조사 결과를 실시했으며, 이를 내년도 교육과정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해 미취업 및 실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빚고울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류,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방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기기 가능 준공필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건설(주)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인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내집마련 100% 지원)

분양문의 **351-4610** (062)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